

제 8 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SA1139

한글 성명: 음유연 10여 회

인정이란 선물
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을 웃고 웃고
설레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. 어떠한
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때 설레
임을 느끼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타
인으로 부터 사소한 관심이나 배려를 받
으면 설레게 된다. 나에게 는 그 무엇보다
다도 눈부시게 아름답고 나의 마음이
가라앉지 못하고 계속 두근거리게 하는
것은 바로 사랑과 사람이 서로 주고 받
는 인정이다.
인정이란 것에 처음 깊은 감명을 받
았던 것은 한국어 덕분이였다. 여름 햇
살이 쨍쨍한 10년 전의 그날에 대한
나의 추억이 여전히 생생하다. 이웃 누
나에게서 한국어의 첫 모음을 교습 받았
던 날이다. 그 때 나는 한국 음악을 듣
고 한국 드라마 삼대경에 빠져 매일 매
일 지냈다. 티비에 나온 드라마의 제목
과 배우의 생명을 볼 때 "우와, 한국

제 8 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SA1139

한글 성명: 응웬 티엔 휘

어가 귀여운 원아 왜 이렇게 많아 ” 라고
감탄하며 한국어 학습을 꿈꾸기 시작
했다.

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한국어 학
습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부모님을
보면서 그 꿈을 접기로 했다. 그런데
인정은 나의 꿈을 살렸다. 이웃집에 사
는 누나가 나의 사연을 듣고 도움의
손길을 내밀어 주었다. 나 못지않게 한
국에 대한 사랑이 큰 그 누나가 먼저
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학원에
서 배운 내용을 나에게 다시 가르쳐
주었다. 될새 없이 바쁘더라도 매주
3시간 동안 나에게 한국어의 자음, 모
음 하나 하나를 알려주었다. 가끔 귀찮
이 할 땐 용돈으로 산 한국 만화도 나에
게 선물했다.

그 순간 “인정이 그렇게偉대하네, 빛
나네”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누나에게서
받은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

제 8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SA1139

한글 성명: 음연 씨에 히

풀어 주야 한 다 고 다 짐 했 다 . 인정 은 시
 틀 어 가 는 꽃 이 다시 활짝 피어 나 게
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. 내 꿈 은 인정 에
 의 해 밝혀 졌 고 지금 이 순간 가 치 빛 나
 고 있 다 . 아 기 자 기 한 동그 안 모 양 이 많
 은 한 국 이 를 단 눈 히 잃 고 쇼 은 마음 은
 한 국 과 베 트 남 양 국 의 우 호 관 계 를 강 화
 시 키 는 징 경 다 리 의 역 할 을 하 는 훈 움 한
 통 역 사 가 되 고 쇼 은 꿈 으 로 이 어 졌 다 .
 과 거 의 인 상 갯 은 이 야 기 뿐 만 아 니 라
 현 재 빛 나 고 있 는 인정 도 나 를 목 적
 설 래 게 한 다 . 코 로 나 19 라 는 세 계 적 재 앙
 이 인정 을 어 느 때 보 다 더 돈 보 이 게
 했 다 . 코 로 나 19 대 화 산 세 를 겪 이 기 위 해
 실 시 한 사 회 적 거 리 두 기 탓 에 식 양 부
 족 , 가 난 등 에 시 달 리 는 사 람 이 육 후 죽
 순 처 럼 늘 어 났 다 . 그 러 나 인정 이 가 득 한
 사 람 들 은 기 부 · 봉 사 활 동 을 통 해 서 이 들
 의 불 행 을 어 느 정 도 로 달 래 주 었 다 .
 상 부 상 조 의 정 신 은 이 러 한 도 움 에 서 바

제 8 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SAIB9

한글 성명: 응유연 CC|엔 후

로 엿볼 수 있었다.
 또한 최근에 발발하고 있는 러시아의
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피난길에 오
 르게 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각국이 도
 와주는 소식을 접하면서 쟁쟁한 감동을
 받았다.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임시 숙소
 를 무료로 제공하는 폴란드·독일, 우크
 라이나인을 위한 기부 행렬에 나선 한
 국 기업, 한국인 등은 폭탄·총소리와
 사특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인정
 을 베푸는 것이다. 그 모든 인정이 담
 긴 선행을 접할 때마다 아치 내가 도
 움을 받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른다.
 인정 역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상대
 방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의 위로가 되
 는 등 인간이 돈을 내지 않아도 남에
 게 줄 수 있는 고귀한 선물이다. “손
 에 손 잡고 벼를 넘어서, 우리 사는 세
 상 더욱 살기 좋도록” 이라는 1988 서
 울 올림픽 주제가의 가사처럼 우리가

제 8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SA1139

한글 성명: 응우옌 락옌 후

모든 인정으로 남을 대하면 세상에 전
쟁. 고통. 괴로움 등의 여지가 더 이상
없을 것이다. 유권대 나를 설레게 하는
것은 돈도 아닌, 명예도 아닌, 소박하고
느긋한 향양할 수 있는 인정이다.